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10. 11.(화)
-------	-------	-------	--------------------

국가-교육청-학교가 함께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발표 -

담당 부서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책임자	과 장 고 영 훈 (044-203-6746)
		담당자	장 학 관 방 희 중 (044-203-6523)
			사 무 관 김 보 현 (044-203-6964)
			교육연구사 김 상 민 (044-203-6522)
			교육연구사 박 상 준 (044-203-674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본부	책임자	본 부 장 이 경 언 (043-931-0357)
		담당자	센 터 장 오 상 철 (043-931-0222)

□ 정확하고 체계화된 기초학력 진단과 대상 학생 선정

-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대상 확대
- △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체계적인 맞춤형 진단을 통해 정확한 학습수준 파악 가능
- △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령과 교육청별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2027년까지 국가-시도교육청-학교 연계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완성

- △ 지원 대상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모델과 새로운 교육 기술(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수업 이해도 제고
- △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2027년 모든 초·중·고로 확대)
- △ 필요한 학생에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 제공

□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여건 개선, 기초학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으며,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했다.

【추진 배경 및 정책 상황】

-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며, 근래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확보가 절실하다.

※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과목별로 2.1%p~5.7%p 증가

- 학교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진단이 부족하고, 현재의 진단 도구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다.
 -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가 미흡하여 학교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 수업 중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모델 발굴 및 디지털 교수·학습 자원의 활용이 저조하고, 지원 학생에 대한 이력관리나 상담 등도 미흡하다.
 - 교원의 기초학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 지원이 부족하고, 국가-지역 사회의 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한 상황이다.
- 이러한 정책 상황에 대응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 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 세부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정책목표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

진단	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현장 수요 기반 진단도구 개선
		기초학력 맞춤형 진단체계 강화
지원	②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층 안전망 구축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체계화
		정규수업 연계 기초학력 교수·학습 혁신
		학교 내 종합적 지원
예방	③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지원	학교 밖 전문적 지원
		학습·심리·정서측면의 종합적 접근
기반	④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교과·담임교사 지원
		기초학력 보장 업무 여건 정비
		교원양성 과정 개선
		국가-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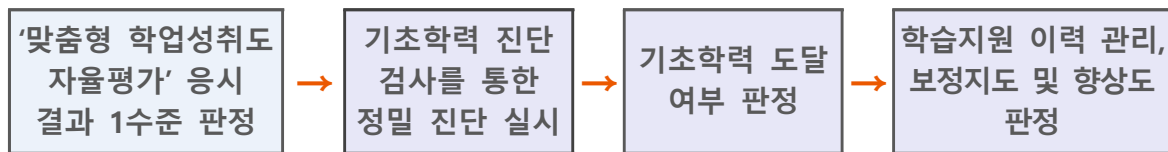
1]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고, 두 평가도구를 연계하여 단위학교에서 보다 표준화 된 도구로 심층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 확대(안): 초1~고1 → 초1~고2 (2024~)

※ 자율평가 확대(안): (2022) 초6·중3·고2 → (2023) 초5·6, 중3, 고1·2 → (2024) 초3~고2

<(예시)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연계 활용 방안>



-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 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하여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 국가·시도교육청·연구기관 등이 개발·보급하고 있는 진단도구를 연계·제공

-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체계화하여 단위학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종합계획의 취지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진단도구 선택·적용 및 대상학생 선정 세부 절차 등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필요한 경우 학교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경계선 지능, 읽기 곤란 등 특수요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지원한다.

2]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1단계 정규수업 연계 기초학력 교수·학습 혁신

-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LMS)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여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제고한다.
- 1수업 2교(강)사제를 정규수업, 정규수업과 연계한 교과보충 등 학교·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을 다양화한다.

※ (예) 방과후 교과보충 시간에 협력 교(강)사가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하여 결손 해소 지원

-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확대(448시간→482시간)하고, 기초 수리력 함양을 위해 학습수준과 범위를 조정하는 등 교육 과정을 개선한다.

2단계 학교 내 종합적 지원

- 학습·행동·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감)·담임·상담·특수·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 협의회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확대한다.
- ※ 두드림학교 운영 목표: (2022)6천교 → (2024)8천교 → (2027)모든 초·중·고
-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학교 내 교육복지사업, 위기학생 지원 등과 연계하여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추진한다.
- 낙인효과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우려로 인한 선정 기피를 해소하고, 가정 내 연계지도를 위해, 진단·지원과정에 학부모(보호자) 참여를 활성화한다.
 - 자녀의 진단 결과, 지원 내용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극복 사례 등을 안내하여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담 등 학부모(보호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3단계 학교 밖 전문적 지원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경계선 지능·읽기곤란 등의 특수 요인에 의한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 2027년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위(Wee)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하는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 학생 통합 진단 지원 확대(안): (2022)13개청 → (2024)100개청 → (2026)모든 교육지원청

③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교(강)사를 활용한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대학생 등 보조인력(학습지원튜터)을 통한 ‘튜터링’을 지원하고,
 - ※ 교과보충 예산(안): (2023) 3,171억 원 → (2024) 3,200억 원 → (2025) 3,300억 원
 - ※ 학습지원 ‘튜터’ 예산(안): (2023) 578억 원 → (2024) 600억 원 → (2025) 620억 원

-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 심리·정서 회복 예산(안): (2023) 804억 원 → (2024) 850억 원 → (2025) 900억 원
- 다문화·탈북학생의 기초학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읽기, 쓰기, 셈하기 진단 도구 및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차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체육·예술 분야 활동 또는 건강상 장기결석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과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 학생, 소년원학교 재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학습 진단·보정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 읍면·도서지역 대상학생을 위해 방과후·주말 교과보충 및 ‘튜터링’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별 거점학교를 선정하여 전문인력 교류와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4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 교원의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고려한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별(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연수를 신규 개발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2024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 설계 등에 대한 단위 학교 대상 상담(컨설팅)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지역여건에 따라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
-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학습 방법 등을 교직과목에 반영하고, 교육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한다.
- 현황 조사, 성과관리, 정책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및 시도 단위 전문적인 기초학력 지원기관인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 매년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점검 】

-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특히 올해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첫해로서, 법과 시행령의 시도 적용을 위해 교육감이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기초학력진단검사,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학습지원 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기준, 학교의 추가적인 지원 요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
 - 향후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을 점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추진 목표 및 추진 방안
2. 기초학력 보장 추진 체계
3.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4. 정책 기대 효과

【별첨】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정책 비전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

추진 목표

- 2025년까지 **AI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

핵심과제

세부과제

진단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1-1 현장 수요 기반 진단도구 개선
- 1-2 기초학력 맞춤형 진단체계 강화
- 1-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체계화

지원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 2-1 정규수업 연계 기초학력
교수·학습 혁신
- 2-2 학교 내 종합적 지원
- 2-3 학교 밖 전문적 지원

예방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지원

- 3-1 학습·심리·정서 측면의 종합적 접근
- 3-2 학생별 상황·특성 및 지역연계
맞춤형 지원

기반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 4-1 교과·담임 교사 지원
- 4-2 기초학력 보장 업무 여건 정비
- 4-3 교원양성과정 개선
- 4-4 국가·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1. 정밀한 진단 및 체계적 선정

기초학력 진단



진단도구 연계를 통한 다중적·심층적 진단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 초종교 별 읽기·쓰기·셈하기
- 국어·사회(역사)·수학·과학·영어

- 참여학년 확대
(2022) 초1~고1 → (2024) 초1~고2
- 학교 자율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활용
- 결손 여부뿐만 아니라 결손영역에 대한 정밀한 추적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 (초·중)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 (고) 국어·수학·영어

- 참여학년 확대
(2022) 초6·중3·고2 → (2024) 초3~고2
-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교과를 선택하여 평가 참여
- 지식·역량·태도 등을 진단하여 평가 후 일주일 이내에 맞춤형으로 피드백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학습진단체계 구축

- 학생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 실시
- 교수 학습과정에서 상시적 활용 → 수업 중 기초학력 지원

학습지원대상 학생 선정

단위학교

기초학력 진단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을 통해 기초 학력 진단

후보군 선정

진단검사 결과, 교사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후보군 선정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학생정보를 바탕으로 대상학생 선정
※ 필요 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연계 의뢰

선정 학생 지원

교과보충, 멘토링 등 개별학생 지원

기초학력 재진단

기초학력 향상도 진단도구, 교사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최소한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 확인

추가 지원 여부 결정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향상도검사 결과, 수업 및 프로그램 참여 태도 등 성과분석을 통해 대상 학생유지 여부 및 추가지원 논의

추가 지원

학생 부족부분 집중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심층 진단

전문 진단도구를 활용해 의뢰학생의 학습지해요인 심층 분석
(인지, 심리, 정서, 행동, 환경 등)

학생 및 학부모 면담

진단결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선정 학생 지원

학습지해요인 맞춤형 교육 실시
※ 필요 시 전문기관(특수교육, 다문화교육, Wee센터, 돌봄, 복지, 전문의료기관 등)연계

추가 지원 여부 결정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외부 전문기관의 관찰 및 면담 결과 등을 통해 학습지해요인 해소 여부를 판단하고 프로그램 추가 지원 여부 결정

추가 지원

학습지해요인 해소 집중 지원

※ 진단검사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관련 세부사항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정함

2.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



수업연계

기초 문해력·수리력 강화

- 초등 저학년 국어수업 시간 확대 초1~2학년 한글익힐 시간: (현행) 448시간 ▶ (24) 482시간
- 수학의 학습수준, 범위 재구조화

수업모델 다양화

현장수업 기반으로 1수업2교과(사) 지원 및 정규수업과 연계한 교과보충 등 탄력적 운영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촉진

AI 학습프로그램, 디지털교과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학생 특성·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탈북, 운동·예술·건강 상의 이유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 등



학습결손 예방

1:1 또는 5명이하 소규모 맞춤형 교과보충 지원

[예산, 억원]
(23) 3,171 ▶ (24) 3,200 ▶ (25) 3,300

학습지원 튜터링 확대

대학생 등 튜터가 보충 학습 지원 및 학교 생활·교우관계·진로 등 상담

[예산, 억원]
(23) 578 ▶ (24) 600 ▶ (25) 620

학교 자율 심리·정서 프로그램 확대

[예산, 억원]
(23) 804 ▶ (24) 850 ▶ (25) 950



학교 안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내실 있는 선정 및 지원방안 심의

두드림 학교 확대

- 교과·담당·상담·특수·보건 교사로 One-team 구성 ▶ 종합적 지원
-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적용

학부모 참여 절차 및 방법 체계화

- 진단검사 방법 및 일정 안내
- 지원사항 안내 및 전문기관 연계 여부 협의
- 학부모(보호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상담 등 지원 강화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역할 강화

- 학교 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전문 검사(경제선지능, 읽기곤란 등) 실시
- 학습코칭, 심리·정서 상담, 단위 학교 컨설팅 등



학습·건강·복지 등 학생 통합진단 지원모델 2027년까지 전국 확산

[학습지해요인별 통합지원 개념도]



3.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교사 지원

-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력주기별 체계적 연수지원
- 단위학교 컨설팅을 통해 담당 교원의 업무편중 해소

교원 양성

- 교직과목 내 기초학력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내용 반영
-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 등과 연계하여 기초학력 보장사업 경험 기회 제공

기초학력지원센터

- 기초학력보장 정책 개발
- 현황 분석 및 성과 관리
- 만족도 조사 및 현장 컨설팅



협력 지원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으로 우리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

🏠 진단과 맞춤 지원



학기 초에 했던 여러 가지 진단검사를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학교 수업 전에 추천해 주신 기초학습 콘텐츠를 듣고
수업에 참여하니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한결 수월했고,
**수업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두 분의 선생님 중 한 분께
바로 질문할 수 있어서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안내해 준 대로 상담기관에 다니고 있어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어서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 정보 제공



학습 수준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가정에서도 아이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 전문성 신장



기초학력을 처음 담당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경력자 수준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와 연수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업무 매뉴얼 보급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좋았어요.

🏠 단위학교 책임지도



학교에서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은 학습지원 담당 교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담임·상담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학교 전체에 확산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학교장으로서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